

19세기 후기의 서양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金 珠 愛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C

Ju-A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unction and feature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C,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change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are compared the first half of the 19C with the second half of the 19C.

In the second half of the 19C, the useful function to ease for body was important. In the 1860's, for day-shirt, the tucked panels was disappeared and the front was plain. But the evening dress-shirt continued to show an expansive front tucked. Coloured shirts was used for country and sporting occasions.

Ready-made underwear was used.

In the 1870's, the plain breast was introduced and the Gladstone collar was used. Paper collars and dickeys were unfashionable. The drawers was composed a gusset at the back of the waistband. The dress of one generation was became the livery of the next.

In the 1880's, a new feature was one stud and the use of pique for the breast. Coloured shirt was composed of stripes across the breast. In the 1890's, height of the collar steadily increased. The coat-shirt and regatta shirt became popular. The nice choice of shirt, collar and tie was a matter of supreme importance. The social status of the white shirt was further threatened by fancy coloured shirts. The mode of relaxation affected sports shirts. By the close of this period, both sexes accepted the hygienic rule of wool next the skin.

I. 서 론

19세기 전기에는 단순함과 기능을 강조하던 시대적 경향이 속옷에 적용됨으로서 신체보호를 위한 실용적 기능이 중요시되었고 개인의 청결함이 새로운 신분표시로 대두되었다. 특히 셔츠 앞 부

분이 근세부터 신분표시로 계속됨으로서 남성 속옷에서 신분표시가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셔츠에 있어서 주·야간의 형태 차이와 속옷 항목이 새로 도입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전보¹⁾에 이어 19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후기를 통하여 남성의 새 모드인 편하고 넉넉함이 속

1) 金珠愛, 19세기 전기의 서양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권 5호, 1999, pp. 56-67.

옷에 적용된 점과 모(毛)가 위생적인 속옷의 소재로 받아들여져서 일반화된 점을 살펴보면, 나아가 19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과 비교하여 후기의 남성 속옷이 변화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남성 속옷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기 후기는 남성 속옷의 변화가 세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남으로서 각 시기별로 기능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II. 19세기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프랑스는 제 2제정의 붕괴와 더불어 공화제가 확립되면서 산업의 진흥과 국외로의 세력확장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와 경제, 문화면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계속 차지하게 되었다. 또 영국은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해외로 세력신장을 하였으며 로마 합병으로 자유주의 국가로의 발전을 본 이탈리아와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를 성취한 프로이센 등이 부각되었고, 미국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황제 재위 기간(1852~1870) 동안 프랑스 모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는 19세기 후반의 유행을 주도하였다²⁾.

1860년대에 화학 염료와 재봉틀의 도입으로 기성복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18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복식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유럽을 지배한 부르주아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화하여 보수적 문화와 진보적 문화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하였다. 부르주아 문화는 화려함과 함께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 경향은 제 2제정의 후반에 들어오자 뚜렷해졌다. 즉, 문화의 모든 면에 실용적인 것이 적용되어서 현대문화의 확립과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따라 복식도 우아하고 화려한 것이 요구되면서 본질적으로는 문명의 현저한 진보를 따르게 되어, 귀족풍의 불편한 아름다움은 1860년대 후반에 오면서 급속히 실용적인

경향으로 바뀌어 갔다.

1870년대의 산업 발전은 비약적인 생활의 변혁을 가져왔으므로 제 2차 산업혁명을 이루었다. 그 결과 인공염료와 레이온 등이 대량생산되었고, 의복재료의 색상이 다양해지고 직물의 종류도 많이 늘어났다.

19세기 후기를 지배한 리얼리즘은 지나친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시작하여 사회를 비판하는 건전한 운동으로 발전하여 이러한 사상을 담은 문학작품들이 시대사조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인상파화가들이 예술에 기여하였으며, 1880년대에 유럽과 미국의 건축가들이 기능주의라는 건축운동을 일으켜서, 코르미유·유리·강철·콘크리트 등의 새로운 건축 소재의 개발과 현대생활의 적용은 의복의 구조와 기능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³⁾.

산업발전의 결과 직장 여성의 증가로 드레스 대신 테일러드 슈트가 유행하게 되었고 여유가 생긴 중산층에서 테니스·크로케·자전거타기·수영 등 스포츠를 즐겼으므로 운동하는데 적합한 의복이 개발되었다.

III. 남성 속옷의 개요

이전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복의 편안함이 희생되었으나 18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활동에 편한 의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신사복은 페그-트라우저(peg-trousers)⁴⁾와 트위드 슈트(tweed suit)로 편안하게 되었으며 노동층도 활동에 자유로운 의복을 착용하였다. 처음으로 남성복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나타남으로서 여윌롭고 우아함이 남성의 새로운 모드로 되어 목과 허리부분이 여윌로웠으며 코르셋 착용을 꺼렸다. 1860년대 초기에 페그-트라우저가 사라졌고 트라우저 다리의 아랫부분이 길어지며 성적매력이 없어졌다. 1860년대에는 고상한 척하는 행위를 꺼렸으며 색깔 있는 속옷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속옷에 자수를 놓는 것을 퍼스롭게 느끼거나 유백색을 꺼리는 모순적인 면도 있었다. 재봉틀의 도

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452

3)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5, pp. 296-297

4) 위는 넓고 밑이 좁은 썸머모양의 바지.

입으로 가성복이 대량 생산되는 현상이 속옷에도 도입되어 속옷의 가성복화가 이루어졌지만 셔츠는 여전히 가정에서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1870년대에는 숙녀의 압전한 채 하는 행위와 신사의 퇴폐 사이에서 부조화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것의 조합된 형태가 속옷에 도입되었다. 즉 색깔있는 모직 조끼와 나이트드레스(nightdress)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 당시 패션은 성적 매력을 나타내었으나 재단사가 만든 워킹 코스튬은 니커보커와 더불어 정숙함을 나타내었고 위생적 속옷이 착용되었다.

1880년대의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 의복의 사치스러움이 저지되었고 위생적인 속옷이 증가되었다. 신사는 슈트와 칼라로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고 색깔있는 셔츠 착용을 꺼렸으나 19세기 말기에 일상복으로 색깔있는 셔츠가 이용되었다. 위생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속옷의 소재로서 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속옷에 모를 이용하는 것은 몸매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매력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은 남성 속옷이 갖는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는 본능과는 상반되는 면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계층의 표시는 부에 의존했으며 경제 침체기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적 본능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1880년대에 신사의 칼라는 크기와 형태면에서 많이 변화되었고 멋쟁이는 셔츠 앞, 칼라와 커프스로서 신분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IV.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

1. 1860년대

1) 셔츠(Shirt)

정장용 데이 셔츠(day-shirt)의 앞부분은 위쪽의 단추를 나타낼 정도로 충분히 노출되었지만 크라밋과 높게 채워진 코트의 단추로 인해 셔츠 앞이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셔츠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주름 대신에 팻팻하지 않으면서 편평한 앞부분이 보였다. 똑바른 칼라(upright

collar)는 뽀족한 끝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턱에 닿을 정도로 낮았으므로 목과 머리의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일상복으로 이용된 셔츠 칼라는 경사진 뽀족한 끝이 중심에서 맞닿고 각계 뒤집혀진 V트임을 이루는 낮은 싱글 칼라나 이중 칼라(double collar, turn down collar)가 이용되었다. 셔츠의 이중 칼라는 코트의 단추가 높게 채워졌으므로 노출되지 않거나 벵타이로서 감추어졌다. 커프스는 풀을 적게 먹었고 보석으로 장식된 링크로 여했다. 셔츠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앞보다 뒤



<그림 1> Evening dress shirt with basket-work⁵⁾ design, 186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02)



<그림 2> Shirt, 1862
(The Book of Costume, p.906)

5) 바스켓 스티치를 응용한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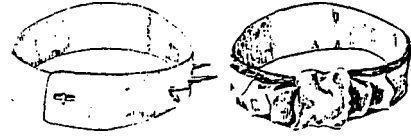
<그림 3> Dress-shirt, collar and tie, 186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60)

가 상당히 길었고 풀이 적게 되어진 앞은 이중 가슴의 중심 퍼널로 구성되었으며 무가 없는 비숍(bishop)형 소매를 이루었다.

이브닝 드레스-셔츠⁶⁾의 앞부분은 중심 퍼널의 측면에 주름(그림 3)이 있거나, 측면 주름이 없는 경우는 중심 퍼널이 자수로 장식되어 노출되었다(그림 1, 2). 앞의 아래쪽 부분은 2~3개의 장식단추로 구성되었고 똑바로 선 칼라(straight standing collar)는 앞에서 뾰족한 끝이 맞닿으며 흰 나비타이와 함께 착용되었다.

빅토리아시기⁷⁾ 중엽에 이르러 남성은 셔츠의 앞부분이 유채색이거나 화려하게 꾸며진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시골에서나 스포츠 시기에는 색깔있는 셔츠를 착용하였다. 노동층에서도 색깔있는 셔츠를 착용하였으나⁸⁾ 상류층은 비노동층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흰 셔츠와 칼라를 상징적으로 고수하였다.

신사의 데이 셔츠와 칼라는 다양하였으며 칼라 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었다. 즉 턱 아래에 닿는 똑바로 선 칼라는 국회의원이거나 지식인이 착용하였고 노인은 19세기 전기에 이용되었던 칼라 끝이 뺨까지 오는 뾰족한 칼라 형태였고 예술가와 작가는 낮은 이중칼라를 이용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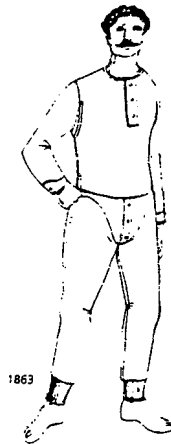
<그림 4> Cravat with a spiked metal collar, 1862
(*Victorians Unbuttoned*, p.19)

특이한 것으로 보우 뒤에 뾰족한 금속 칼라가 숨겨진 크라밧은 어두운 밤에 교살 강도 방지용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그림 4)¹⁰⁾.

여름용으로 고즈 메리노(gause merino)와 인디아 고즈를 이용하였으며 겨울용으로는 색소니(saxony)나 캐시미어(cashmere)로 된 램즈 울(lambs'wool) 등 소재가 다양하였다.

2)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와 팬츠는 메리노, 램즈 울 외에도 흰



<그림 5> Drawers and Undervest, 1863
(*Men's Fashion*, p. 71)

6) 밤의 정장으로 야외복이라고도 하며 밤의 파티나 극장 관람 등에 착용되는 셔츠.

7) the Victorian age: 1837-1901

8)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 140.

9)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102.

10) Sarah Levitt,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p. 19.

색과 갈색의 면, 린넨, 새우 등을 이용하였고, 면이나 린넨은 여름용이며 모는 겨울용으로서 계절에 따라 소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드로워즈는 발목길이었으며 앞트임을 가지며 발목부분이 니트로 되었다(그림 5).

3) 언더베스트(Undervest)

면이나 린넨을 소재로 이용한 언더베스트는 여름에 착용되며 겨울용으로는 주로 메리노를 이용한 모제품이 이용되었다¹¹⁾. 언더베스트는 민칼라였으며 겨드랑이에 부가 삽입되었다(그림 5)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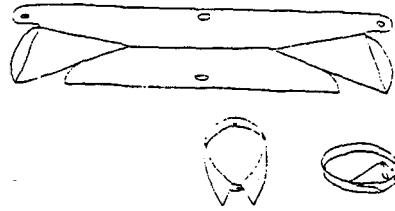
4) 브레이스(Braces)

서스펜더와 동의어로 이용된 브레이스는 다양한 색상의 베를린 털실 세공(Berlin woolwork)¹³⁾으로 장식되거나 젊은 숙녀들이 직접 만들어 남성에게 선물했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¹⁴⁾. 브레이스는 트라우저의 형태를 적절하게 유지시켰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스 대신 타이트한 허리밴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¹⁵⁾.

2. 1870년대

1) 셔츠

평상복의 흰 린넨 데이셔츠는 뒤보다 앞이 약간 짧은 곡선단으로 되었고 앞부분과 커프스는 이전보다 풀을 많이 먹여 뿔뿔하게 되었으며, 1870년대 후반부터 셔츠 앞부분이 요크로 이루어졌다. 웨이스트코트 위로 노출되는 다양한 V트임은 작아졌다. 처음에는 두 개의 장식단추가 노출되다가 나중에 한 개만 노출되었다. 그러나 V트임이 깊게 재단되는 여름은 예외였다. 1870년



<그림 6> Paper collar, 1879
(Victorians Unbuttoned,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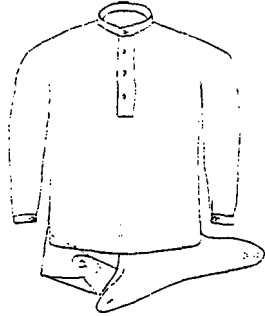
대 셔츠는 중앙 주름이 사라지고 편평한 가슴이 특징이었다.

정장용 칼라는 뾰족한 끝사이에 작은 V간격을 이루면서 낮고 똑바르게 이루어졌다. 1870년대에 유행한 칼라형은 뾰족한 끝이 바깥으로 약간 등글게 되었고, 이것은 Gladstone¹⁶⁾에 의해 장려되었으므로 후에 글래드스톤 칼라(Gladstone collar)로 불리었다¹⁷⁾. 똑바로 선 칼라와 함께 폭이 좁은 보우 타이가 일반적이었고 옥타곤 타이(Octagon tie)¹⁸⁾도 이용되었다. 표면이 린넨으로 된 종이 칼라와 디키는 유행에 뒤졌으나 가난한 사람은 종이 칼라와 커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그림 6)¹⁹⁾.

시골의 일상복에서는 이중 칼라가 계속 사용되었으며 칼라와 셔츠는 얼은 색의 줄무늬나 꽃무늬 형태로 이루어졌다. 커프스는 칼라와 조화되며 가장자리에는 커프스 링크가 있었고 코트 소매 위로 반 인치 정도 돌출되었다.

이브닝 드레스 셔츠는 풀이 먹여졌고 앞이 매우 완만하게 되었다. 드레스 셔츠²⁰⁾는 약간 낮은 윙드 칼라(winged collar)²¹⁾와 좁은 흰 보우로 구성되었다. 구식이 된 드레스 셔츠 앞부분의 프릴

11) Phyllis G. Torrtora and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6, p. 311.
 12) Peacock, J., *Men's Fashion*, Thames & Hudson, 1996, p.80.
 13) 베를린 울을 사용하기 시작한 1820년경부터 베를린 워크로 불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크로스 스티치의 다른 수법이 이용되고, 흑색 바탕에 화려한 꽃을 수놓으며, 주로 크로스 스티치를 함.
 14)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Faber and Faber, 1981, p. 21.
 15) Phyllis G. Torrtora and Keith Eubank, 앞의 책, p. 312.
 16) William Ewart Gladstone, 빅토리아 여왕 시대(1868-1894)의 영국 수상.
 17)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172.
 18) 1860년대부터 착용한 남성의 스카프 또는 크라바트로, 넓고 긴 천의 앞부분을 X자 형태로 접은 다음, 부속되어 있는 좁은 끈을 목뒤에서 후크 앤드 아이(hook and eye)로 고정.
 19) Sarah Levitt, 앞의 책, p. 61.
 20) 정장 수트나 턱시도 밑에 입는 정통 정장 스타일의 남성 셔츠로 앞단추와 넥타이가 결들여짐.
 21) 칼라 끝이 넓게 각이 진 테일러드 셔츠 칼라, 깃을 아래로 접어 구부린 직립 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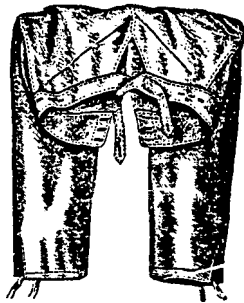
<그림 7> Leg fitting shirt, 1877
(Victorians Unbuttoned, p.57)

은 다음 세대에 하인의 의복에서 나타났다. 즉 한 세대의 주인 의복에 유행된 아이템이 다음 세대에는 하인의 의복으로 남게 되었다²²⁾.

신체의 활동으로 셔츠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다리부분을 맞게 만든 셔츠가 이용되기도 하였다(그림 7)²³⁾. 셔츠 소재는 미국 시민전쟁으로 인하여 면이 고가였으므로 린넨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2) 드로워즈

드로워즈는 트라우저 아래에 착용될 때는 발목 길이였으나 스포츠용의 니커 아래에 착용될 때는



<그림 8> Underpants, 1876
(Wedding Fashions 1862~1912, p.17)



<그림 9> Drawers, 1869
(Survey of Costume, p.304)

무릎길이였다²⁴⁾. 드로워즈의 앞트임은 단추로 여렸으며 뒤에서 끈으로 허리둘레를 조절하였고, 허리밴드는 끈(cross tape)으로 뒤쪽에서 당겨졌으며, 그 아래쪽에 무가 삽입되었다(그림 8, 9). 보통 모를 소재로 이용하였으나 여름에는 면 니트론 이용하였다. 긴 드로워즈는 long johns라는 명칭으로 이용되었다²⁵⁾.

3) 베스트

베스트는 언더베스트, 언더셔츠로 불렸으며 모를 소재로 이용하였으나 견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헝겊이까지 오는 베스트는 좁은 목밴드, 네개의 단추가 부착된 앞트임, 커프스가 부착된 소매로 이루어졌다.

3. 1880~1890년대

1) 셔츠

1880년대의 셔츠는 한 개의 장식단추로 이루어지며 가슴부분은 린넨 대신에 퍼케를 이용하였고 둥근 커프스와 가슴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특징적이었다.

흰색의 정장용 데이셔츠는 각이 진 커프스로 구성되었다. 1890년경에 열트임에 작은 무가 삽입되었으며, 앞과 뒤의 곡선 단은 계속 유지되었

22)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173.

23) Sarah Levitt,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p.61.

24) Phyllis G. Torrora and Keith Eubank, 앞의 책, p. 336.

25) Elaine Benson and John Esten, 앞의 책, p. 109.

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웨이스트코트 앞부분의 재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여름 셔츠는 V트임이 깊었고 겨울 셔츠는 V트임이 얇게 되었다. 셔츠는 옆트임이 있거나 코트처럼 입을 수 있게 완전히 앞이 트였다.

1890년대 중반에는 19세기 전기에 2인치로 좁아졌던 칼라 폭이 3인치로 증가되었고 똑바로 선 칼라는 약간 겹쳐지는 뾰족한 끝을 가졌으며, 칼라 뒤쪽보다 앞쪽이 약간 높거나 뒤집어진 높은 밴드로 대체되었다.

당시에 우수한 품질의 셔츠, 칼라, 타이틀 조화롭게 선택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일이었으며, 멋쟁이는 칼라와 커프스가 부착된 셔츠를 반드시 착용하였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어 실제로 땀 수 있는 칼라 외에도 한쪽 가장자리가 오염되었을 때 땀 수 있는 커프스나 작업시 보호될 수 있도록 커프스 위로 커프 프로텍터(cuff protector)가 이용되었다. 해군 사관생도는 종이 칼라를 이용하였으며 디키(dickey)²⁶⁾가 상입화되었다. 중·하류층에서는 cheats²⁷⁾를 이용하였다.

흰 셔츠를 대신하여 뱃뿔한 칼라와 커프스로 구성된 색깔있는 셔츠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



<그림 10> The new court shirt, 1883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20)

26) 땀 수 있는 가죽 셔츠 앞 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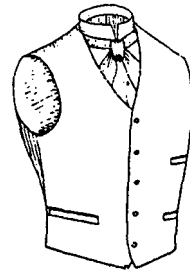
27)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 42.

이것은 17세기에 앞부분은 우수한 소재였으나 뒷부분은 열악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19세기에 디키처럼 부착된 칼라를 가진 셔츠 앞에 이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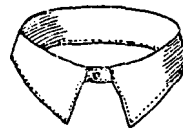
28) 접어 꿰힌 칼라로 앞여밈에 2~3개의 단추가 있는 앞여밈을 플레킷모양으로 한 스포츠 셔츠.

29) 폭이 동일하게 좁은 직선의 넥타이. 1890년대에 라운지 슈트와 함께 남성이 착용.

30) 낮은 다발 칼라, 뾰족한 끝이 셔츠 앞의 아래쪽으로 돌출되며 주로 1890년대에 이용됨.



<그림 11> Sailor's tie, 1890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p.189)



<그림 12> Shakespere collar, 1890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p.192)

다. 어두운 색상은 사라지고 핑크와 블루로 된 줄무늬가 애용되었다.

1890년대에 남성 모드의 여유로움이 스포츠복에도 적용되어 테니스 셔츠는 턴 다운 칼라(폴로 칼라)²⁸⁾와 옥스퍼드 타이(Oxford tie)²⁹⁾로 이루어졌으며 크리켓 셔츠는 셰익스피어 칼라(Shakespeare collar, 그림 12)³⁰⁾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 말엽에 착용한 코트-셔츠(coat-shirt)는 앞 아래쪽으로 단추가 채워져 있으며 주로 드레스 셔츠로 이용되었고 드로워즈나 트로우즈에 단추를 채우기 위해서 셔츠 앞 아랫부분의 탭(tab)이 보편화되었다(그림 10). 드레스셔츠 재료는 흰 턴넨이나 고운 피케(pique)가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셔츠, 칼라, 넥타이의 다양한 변화 외에도 착용 규범이 완화되었다.

유색의 줄무늬 옥스퍼드 셔츠와 캄브릭으로 만

는 줄무늬 레가타(regatta) 셔츠가 일반화되었다.

1880년대 후기에 크라밧은 단추의 여밈이 높아졌으므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크라밧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1890년대에는 복장 중에서 가장 독립적인 항목이었다³¹⁾. 세일러 노트 타이(sailor's knot tie, 그림 11)와 포인 핸드 타이(four in hand, Derby로 알려짐)가 특히 애용되었고, 이 외에 보우 타이(bow tie)나 에스코트 타이(ascot tie) 및 스카프 타이(scarf tie) 등도 이용되었다³²⁾.

일반인의 이브닝웨어는 노출이 적었으나 플래이 보이의 예복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셔츠 앞부분이 많이 노출되었다.

노동자의 플란넬 셔츠는 팔꿈치 아래 길이의 소매로 구성되었고 셔츠 위에 줄무늬의 플란넬이나 플란넬트를 소재로 이용한 탑 셔츠(top shirt)를 착용하였다. 노동자는 평소 거드랑이에 무가삼입된 색깔 있는 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주일에는 흰 셔츠를 착용하였다.

2) 베스트

베스트는 언더셔츠, 언더베스트라는 명칭으로 이용되었고(그림 13, 14) 모로 된 언더베스트는 크기를 여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림 13> Scarlet vest, 1883(*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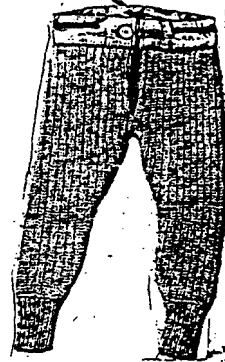


<그림 14> Undershirt, 1894
(*Underwear*, p.34)

소재는 거드랑이에 환기구멍을 낸 램즈 울이나 견, 자연 모가 이용되었고 노동자는 소매 없는 플란넬 베스트를 이용하였다. 언더베스트 위에, 환기구멍이 있고 새무가죽으로 안을 댄 또 다른 진홍색 플란넬 언더베스트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3) 드로워즈

소재로는 천연 모와 램즈 울이 이용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흡습성이 있는 스토키넷(stockinette)³³⁾으로 된 짧은 팬츠가 이용되었으며 여러



<그림 15> Long knitted drawers, 1888
(*Victorians Unbuttoned*, p.129)

31) Valerie Cumming,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 79.

32)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3, pp. 326-327.

33)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75.

주로 18, 19세기에 이용된 평편 매리야스 재토로서 그물구조를 가진 매우 가늘게 짜여진 모직 물, 보통 타이트한 팬탈롱에 많이 이용.

종류의 위생적인 속옷이 일반화되었다. 우아한 색상이 선호되었으나 선명한 색, 연보라색, 옅은 자주색, 밝은 푸른색도 이용되었다. 1880년대 중반에 면, 소모사와 메리노로 된 펜츠와 드로워즈가 이용되었고 이전에 비해 경량의 제품이 많았으며 니트도 이용되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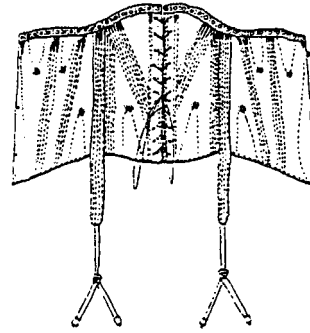
노동자는 색깔있는 드로워즈를 착용하였으나 휴일에는 흰 색의 드로워즈를 이용하였다. 플란넬이나 능직의 켈리코를 재료로 한 라이닝은 드로워즈로 이용되었고 이것은 넓은 허리밴드를 가지며 발목둘레를 끈으로 매었다.

4) 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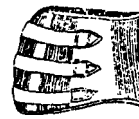
1890년대에 브레이스는 뒤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그림 16) 도시 신사는 브레이스 대신 새시나 벨트를 착용하였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어린시절부터 브레이스를 착용하지 않도록 훈련되었다. 19세기 말에 탄성 소재로 된 브레이스가 이용되었다³⁴⁾.

5) 코르셋

코르셋은 골을 이루는 뾰뾰한 밴드로 이루어졌으며 펜츠에 고정되었고 서스펜더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그림 17). 코르셋은 자수로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사냥용으로 신체보호를 위해



<그림 17> Corset with suspenders, 1883 (Victorians Unbuttoned, p.43)



<그림 18> Hunting belt, 1860-90 (Underwear, p.34)

고안된 것도 있었다. 또한 혁신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전기광학 벨트(Electropathic Belt)가 도입되기도 하였다(그림 18)³⁵⁾.

6) 콤비네이션(Combi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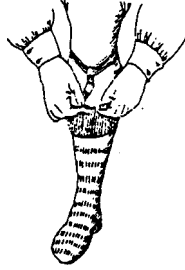
남성은 드로워즈와 언더베스트가 결합된 콤비네이션인 한 벌(union suit)로 구성된 것을 이용하였다³⁶⁾. 1880년대에 건강과 위생에 대한 새로운 중요성이 의복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속옷에 더욱 강조되었다. 자거(Jaeger)박사에 의해 권장된 콤비네이션은 처음에는 위생적 이유로서 착용되었지만 후에는 보온성이 우수하여 매우 인기가 있었다³⁷⁾.

언더베스트, 콤비네이션, 드로워즈는 스토키넷으로 된 모로 만들어졌으며 성글게 찬 재료는 Jaeger 외에 아르텍스(Aertex), 비엘라(Viyella,



<그림 16> Suspenders, 1886 (Bloomingdale's Illustrated 1886 Gatalog, p.64)

34) Sarah Levitt, 앞의 책, p. 47.
 35)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p. 34.
 36) Phyllis G. Torrtora and Keith Eubank, 앞의 책, p. 336.
 37) Valerie Cumming, 앞의 책, p. 79.



<그림 19> Sock suspenders, 1884
(Victorians Unbuttoned, p.44)

면과 모의 혼방품)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착용되었다³⁸⁾. 19세기 말에 유니온 슈트는 주로 회색의 천연 모로 만들며 붉은 색이 인기가 있었다. 이것의 길이는 무릎이나 발목길이었고 앞에서 아래로 단추를 여몄다³⁹⁾.

7) 드레스 액세서리(Dress accessories)

드레스 액세서리는 의복 제작을 단순화시키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폴란넬과 새무 가죽으로 만든 가슴보호 장치 외에 양말대님(그림 19), 타이클립, 똑바로 선 칼라 들레를 묶는 타이 유지용의 속 고안물, 장식용 단추와 커프 링크스 등 독창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 노동자는 폴란넬 바다벨트와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상부를 두른 편물 소재의 양말 대님을 이용하였다⁴⁰⁾.

V. 요약과 결론

19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60년대

셔츠는 코트의 높게 여미진 단추와 크라밋으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보통 앞보다 뒤가 상당히 길었다. 데이셔츠는 주름이나 러플이 사라졌으나 이브닝 드레스셔츠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

남성의 새 모드가 속옷에 적용됨으로서 셔츠의 칼라가 턱에 닿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어 19세기 전기에 비해 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상류층은 흰 셔츠와 칼라를 상징적으로 고수하였고 특이한 칼라형으로 신분을 나타내었다. 시골에서나 스포츠 시기에는 색깔 있는 셔츠가 이용되었다.

2. 1870년대

평상복의 흰 데이 셔츠는 1860년대 보다 풀이 많이 되어지고 앞이 길어져 뒤보다 앞이 약간 짧은 곡선단이었으며, 웨이스트코트 위로 노출되는 V트임이 작아졌다.

보통 똑바로 선 칼라와 글래스턴 칼라가 이용되었으나 시골의 평상복에는 이중칼라가 유지되었다.

이브닝 드레스 셔츠는 편평한 가슴과 노출된 세계의 장식단추가 특징이었다. 드레스 셔츠는 낮은 원칼라와 좁은 흰 보우로 구성되었다. 구식으로 되어버린 드레스 셔츠의 프릴된 앞부분은 하인의 의복으로 남게 되었다.

드로워즈는 앞트임을 단추로 여미고 뒤를 끈으로 조절하며 무릎이나 발목길이인 점은 19세기 전기와 같았으나 허리밴드 뒤쪽에 무가 삽입되는 차이점이 있었다.

3. 1880~1890년대

신사복은 셔츠와 칼라로서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고 유색의 셔츠 착용을 꺼렸으나 1880년대 중엽에 유색의 폴란넬 셔츠가 흰 셔츠를 대신하여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다. 1880년대에 새로운 코트 셔츠가 도입되었고, 1870년대와는 달리 셔츠는 장식단추 한 개만 노출되었으며 줄무늬로 이루어진 레가타 셔츠가 일반화되었다. 신사의 여유로운 모드가 스포츠 셔츠에 영향을 끼쳤다.

1890년대에 위생적 측면에서 피부 가까이에 모의 착용이 권장되어 여러 종류의 위생적인 속옷이 일반화되었고 새로운 속옷 품목으로 컴비네이

38) Doreen Yarwood, 앞의 책, p. 424.

39) Elaine Benson and John Esten, 앞의 책, p. 109.

40)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Dover, p.194.

선이 개발되었다.

19세기 후기에 점차 낮아졌던 칼라가 1890년대에 높아졌고 넥크웨어와 드레스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벨 수 있는 커프스, 커프스 프로텍트 등을 착용하여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였다. 19세기 전기와 달리 브레이스는 뒤에서 작우가 함께 연결되어 조정되었으나 점차 벨트로 바뀌는 추세였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플라넬 소재는 열등하게 인식되어 노동층에서 주로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후기에 여유로운 모드가 속옷에도 적용되어서 셔츠 칼라가 낮아졌고, 스포츠에 대한 사회의 고조된 관심이 속옷에도 미쳐서 스포츠 셔츠가 발달된 점은 이전 세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경과 속옷과의 밀접한 관련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19세기 후기에 두드러진 현상은 속옷에 모를 이용하는 것이 비매력적으로 인식되었지만 위생적인 측면에서 일반화된 점이다. 이로써 19세기 전기와 더불어 19세기 후기도 성적 매력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이 중시되었다. 또한 남성 속옷이 착용되어온 이래 계속 유지되어온 신분표시 기능이 19세기 후기에 셔츠와 칼라를 통해 나타남으로서, 남성 속옷에서 차지하는 신분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 제봉틀의 도입에 따른 기성복의 대량 생산화가 속옷에도 도입되어 속옷의 기성복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사회적 영향과 속옷과의 밀접된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세대의 상류층의 의복이 다음 세대에는 하류층의 의복으로 지속됨으로서 같은 의복이 착용 계층을 달리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또한 하향 전파되는 유행현상의 한 면을 나타내었다. 시골과 도시, 주간용과 야간용, 일상용과 정장용에 차이를 둠으로서 19세기 후기에 들어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상이 속옷에도 반영되었고 세기말의 다변적인 욕구에 의해 특히 19세기 말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참고문헌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 Bloomingdale Brothers, *Bloomingdale's Illustrated 1886 Catalog*, Dover, 1988.
-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3.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 Elaine Benson and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 Joanne Olian, *Wedding Fashions 1862-1912*, Dover, 1994.
-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ume II, Crown Pub, 1948.
- Peacock, J., *Men's Fashion*, Thames & Hudson, 1996.
-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 Sarah Levitt,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화사, 1995.
- 신영일, 신사복 이야기, Voslenza, 1993.
-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 패션론사전 편찬위원회, 패션론사전, 교문사, 1999.